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12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5월 17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이 날은 주님 정하신 / 찬송가 46(신) 58(구)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32번(시편 71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찬송가 310(신) 410(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 봉독 / 사도행전 18장 26-28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 / 박화신 목사

찬송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찬송가 455(신) 50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1, 2절 / 찬송가 183(신) 1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사도행전 18장에는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세워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자기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열어 드렸고, 그리스보는 자신의 자리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으며, 아볼로라는 뛰어난 재능 속에서도 계속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2.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함보다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람보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자기 집을 열고,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겸손히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삶 속에서 복음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3. 오늘날 우리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오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자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얼마나 열려 있는가? 당신은 무엇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지난 주 설교 요약

사랑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9-10

1.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혼계하고 바로 잡습니다. 물론 인간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기대나 바람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음 쓰고 애쓰는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만족이나 기대를 위해 누군가를 바꾸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3. 그 유익이란 단지 삶의 편안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빛어 가고 계십니다.

4.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큰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보다 편안함을 더 원하고, 순종보다 내 계획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는 아프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다루심 속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9장 공부합니다).
5. 각 전도회 모임이 5월 31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 5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박주혜(10) 최상천(17) 조은영(24) 박래석(31)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익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이 편안해지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유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유익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에 큰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성공, 인정, 안정, 자기 만족을 더 실제적인 유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은 쉽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빛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의 전이가 없다면, 올바른 감사의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만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 Love Does Not Leave Us Alone -

